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발전 밑그림

여수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섬·바다·육지 공존 5개 만 개발 여자만 국가생태공원 지정 등 추진

여수시가 해양관광으로 100년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여수시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섬과 바다, 육지가 공존하는 5개 만(灣)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목표로 한다.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글로벌 해양관광 허브 미항여수'를 내걸고 여수발전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질 생각이다.

이번 연구에는 여수의 새로운 미래상과 발전 전략이 담겼다.

연구용역은 2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엔코리브레인파크(대표 박동원)가 시작한 뒤 10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여수만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5개 만과 여수반도 내륙을 연계한 발전 전략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별 투자계획과 자원조달 방안, 파급 효과 등도 분석했다.

연구 과정에서 시민 설문조사와 여수만 르네상스(부흥) 공모전, 시민참여연구단 운영, 각종 보고회 등을 거쳤다. 17명의 전문가 자문위원은 '여



여수시(시장 정기명·가운데)가 지난 27일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5개 만 발전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수만 르네상스'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용역 보고회에 참석해 정책 제언을 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여수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위한 23개 전략 사업과 61개 사업 과제가 제시됐다.

전략 사업에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장수만 국가세계지질공원 추진 ▲기막만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여수해만 유네스코 창의

도시 지정 ▲광양만 수소도시 지정 등 5개 만별 공식인증 추진이 포함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용역은 여수발전 백년대계 완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잘 추진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4개 지자체 '섬진강 통합 관광벨트' 조성 협력 강화

곡성·구례·광양·경남 하동 통합 브랜드 개발 등 사업 논의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곡성, 구례, 광양, 경남 하동 자치단체장이 머리를 맞댔다.

곡성군은 지난 28일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분기 4개 지자체 시장·군수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곡성군 주관으로 열렸다. 이상철 곡성군수와 김순호 구례군수, 허승철 하동군수, 정인화 광양시장 등 4개 지자체 시장·군수와 실무진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진흥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섬진강 명품길 개발·활성화 계획, 통합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사업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자연 습지 28곳 등 자연 본연의 가치를 지닌 섬진강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명품 100km 구간 걷기 코스 개발 계획을 공유했다.

지역에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상철(앞줄 맨 오른쪽부터) 곡성군수와 정인화 광양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허승철 경남 하동군수 등이 지난 28일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올해 2분기 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관계자는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각 지자체의 노력을 결집해 섬진강을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4개 지자체는 지난 2021년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섬진강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섬진강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으로 선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이 됐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성군 '예술 관광의 부흥 시대' 연다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전통 예술공연·판소리 체험 등 다채

보성군이 국비 7000만원을 확보해 오는 11월까지 다채로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연다.

보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에 선정돼 국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매달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 주간에

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 토요일에는 특색 있는 지역의 거리에서 '특색 문화경쟁'을 펼친다. 보성 판소리성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상설 락(樂)'이 열린다.

특색 문화경쟁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연과 추억의 교복 대여, DJ 뮤직박스 등이

진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 토요일 상설 락(樂)은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열린다. 전통 예술공연과 판소리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보성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보성군이 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택 기자 kyb@kwangju.co.kr

집중호우 기간 유해물질 흡수 배출 단속

구례군, 6~8월 폐수 배출업소·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대상

구례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6~8월)을 맞아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 배출업소, 개인 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사업장 배출시설을 미리 점검해 집중호우 때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한다.

구례군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장마철과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 투기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남도한바퀴 광양주말여행'이 들뜬 광양 예술창고 전경. <광양시 제공>

숲·사찰에서 마음의 쉼표...

주말엔 광양 명소따라 '남도한바퀴'

매주 일요일 광주 유·스퀘어 출발 도립미술관·유당공원·운암사 등

광양시는 '남도한바퀴' 여행으로 공원 숲과 사찰의 고요함을 즐길 수 있는 '마음에 쉼표 찍는 광양주말여행'을 준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여행에서는 광양예술창고와 전남도립미술관, 유당공원, 옥룡사동백나무숲 등을 찾는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40분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2번 승차장에서 탑승한 뒤 광주송정역(오전 9시 10분)을 들른다.

이후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등을 먼저 관람한다.

이어 서천면 광양불교특화거리에서 점심을 즐긴 후 유당공원, 옥룡사지, 운암사 등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주말 오후를 즐긴다. 유·스퀘어에는 오후 6시 5분 도착한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개관 3주년 특별전 '흘러가는 바람, 불어오는 물결'과 리너스 반 데 벨데의 '나는 육지에서 땅고 먹고 싶다' 등 다채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양불교특화거리에서 광양불교를 맞본 뒤에는 빗나루 그늘에서 만발한 장미꽃을 감상할 수 있다.

유당공원에는 500여 년 살아온 이팝나무와 수양버들, 푸조나무 등이 아담한 연못과 어우러져 그윽한 풍취를 자아낸다.

옥룡사동백나무숲에는 1만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빼곡히 들어섰다.

이용료는 1만2900원이며, 관광지 입장료와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따로 내야 한다.

예약은 남도한바퀴 누리집(citytour.jeonnam.go.kr)이나 남도한바퀴 콜센터(062-360-8502) 등에서 할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2030 수도권 청년들 순천서 '한 달 살기'

시, 공모 통해 9명 선발...장천동서 다음달 21일까지 체류

서울·경기 등지에서 온 20·30대 청년 9명이 순천시 장천동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

순천시는 지난 27일 버스터미널 인근 파랑새창고에서 '도시재생사업 장천동 한 달 살기' 참가자 입소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장기체류형 여행자 캠프 '장천 유월(遊月)의 꿈: 새로운 시작'으로 이름 붙인 이 행사는 '일상의 작은 자극, 순천'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경기 등지에서 사는 20·30대 청년 9명이 선발돼 27일부터 오는 6월21일까지 순천에서 살

게 된다.

순천시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에는 100명 넘는 청년들이 지원했다. 서류 심사를 통해 9명을 최종 선발했다.

참가자들은 순천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며 문화체험과 도시재생 사업지 탐방 등을 한다. 한 달 동안 자신만의 순천 살이 경험담을 담은 '순천 리추얼북'을 만들고, 온라인에 한 달 살기 후기를 영상·사진 등으로 남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찰옥수수 '황금흑찰' 특화작물 육성

여수시가 신품종 찰옥수수 '황금흑찰'을 지역 특화작물로 육성한다.

황금흑찰은 알곡에 기능성 성분인 안토시아닌(검정색), 카로티노이드(노란색) 색소가 동시에 발현되는 찰옥수수다. 이삭 끝달림률이 98%로 상품성이 우수하며, 찌르질에 강해 농가 효용도가 높다.

여수시는 올해 기능성 찰옥수수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본격적인 신품종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목표로 옥수수 주산지인 화양면에 7.4ha 규모의 황금흑찰 옥수수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 신품종 찰옥수수 '황금흑찰'.

순천경찰, 외국인 범죄 예방 '치안봉사단' 발대

순천경찰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결혼이주여성, 유학생과 '글로벌 치안봉사단'을 꾸렸다.

이날 순천경찰서에서 열린 '글로벌 치안봉사단 발대식'에는 베트남·일본·우즈벡 등 결혼이주여성 과 외국인 유학생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서

범죄 예방 순찰하고, 공동체 치안 교류망을 구축해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발대식을 치른 뒤 참가자들은 순천대학교 앞 주택·상가 밀집 지역을 찾아 합동 순찰을 했다.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합동 순찰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가장 안전한 순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